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363 호 현대불교
2021년 11월 10일(음 10월 6일) 수요일 / 불기 2565년

한마음에 한 기둥을 세워서 중심을 세우니 주인공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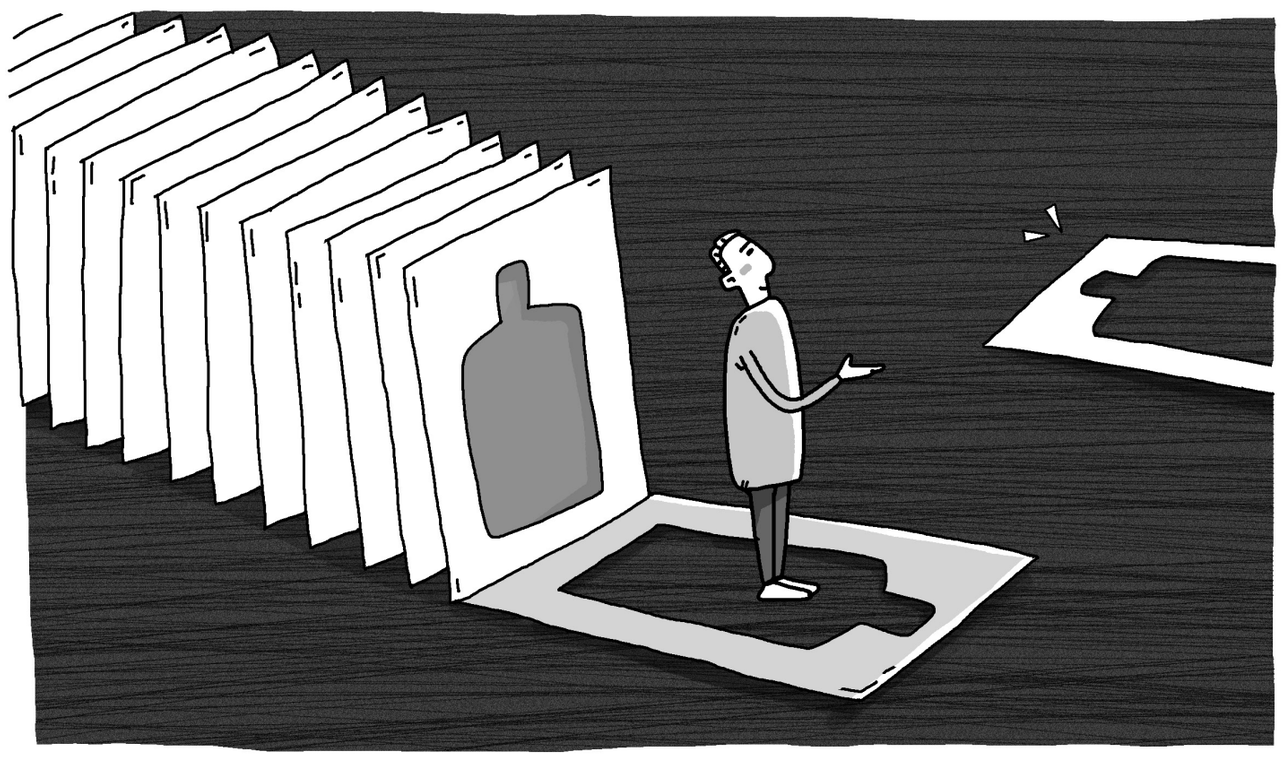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에게서 몸은 받지만 과거에 살던 인과로써 그 악업 선업이 다 그냥 자기가 지은 대로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그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속에서 모두 헤아릴 수 없이 그 생명과 모습, 의식들이 중구난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몸을 운행을 해 주잖아요. 그 의식들이 화가 이만큼 나게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게도 하고 부작용이 나게 하고 병고도 일으키고 유전성도 일으키고 영계성도 일으키고, 그저 매사 걸 다 일으키는 겁니다. 과거에 살던 인연에 따라서 꼭 그렇게 지금 현실로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공부를 가르칠 때는 반드시, 그 모든 의식들, 모습들이 나와 둘이 아니니까, 이 내 몸속에 있는 게 둘이 아니니까 한마음이다. 한 몸이요, 한 마음이요, 한 행동이요, 모두가 하나란 얘깁니다. 포괄적인 하나. 개별적인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한마음에 그 한 기둥을 세워서 중심을 세우니 주인공이라.

그러니 몸이 아프든 어떠한 일이 생겼든, 애고가 생겼든, 가난이 다가오든 우환이 다가오든 병고가 다가오든 모든 거는 거기서 나온 거니까…. 몰라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데 50%가 보이는 데 50%로 얼마나 지겹게 유발되는지 아십니까? 갖은 각색으로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의 몸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괴로운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한마음 속에서, 몸속에, 배낭 속에, 모두 들어 있는 그 속에서 나오니까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해결해라.' 하는 것을 믿고 모든 걸 한마음 주인공, 거기다 되맡겨 놓으라 이겁니다.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거기서만이 들이고 내고 살림을 다 한다는 거, 그거를 믿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거기서만이 낫게 할 수 있고, 거기서만이 이끌어 줄 수 있고, 거기서만이 가정을 화목하게 해 줄 수 있고, 거기서만이,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맡겨 놓는 데에 역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성을 발견하는 데의 공부하는 참선입니다. 앉아서 하든지 서서 하든지 누워서 하든지 또는 일을 하면서 하든지, 이런 거를 불가에서 말하기를 '와선, 좌선, 입선, 행선' 이렵니다. 이 네 가지 선을 전부 한데 합쳐서 참선입니다, 참선. 그러니 생활하는 게 하나도 참선 아닌 게 없는 거죠. 모든 것을 그렇게 놔서 그렇게 맡기고 믿고 그렇게 작용을 해야만이 된다 이런 소리죠.

여러분이 아니었더라면 세상이 벌어진 것도 없고 또 종교도 없고 상대도 없고, 가정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겨났으니까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대 성인들이 '각자 여러분부터 알라, 당신부터 알고 당신부터 믿고 당신부터 발견하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전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또는 그냥 전화기라고 해도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부터 안 해 놨으면, 내 집에 안 해 놨으면 내 집에 전화 올 수도 없고 전화를 할 수도 없다 이 소립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바로 자성을 발견하는 데, 견성하는 데에 역점이 있고,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가는 데 역점이 있고, 병고 애고를 무너뜨리는 데, 녹이는 데 역점이 있고, 유전성을 녹이는 데 역점이 있고 또는 영계성 인과성 세균성, 이런 모두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부입니다. (중략)

그러니까 업보, 유전 또는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 그 인연에 따라서 인과성에 의해서 모든 면에서 다가오는 거…, 그래서 과거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에 모두 배낭에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수억이 들어 있어요, 지금. 모든 이 세포 하나하나에, 지금. 고통을 누가 주고 누가 뺏어 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앞서부터 벌써 그렇게 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모든 거를 한마음 주인공에다,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가 되맡기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앞서의 운명이니 팔자니 이런 게 모두 무너질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병 증세든지 어떠한 애고든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병이다' 하기 이전에 '이거는 공부할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모든 거를 다. '이거는 공부할 수 있는 재료다. 나는, 지수화풍이 토대가 돼서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나 통신력이 충만히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그게 병이 아니라 내가 정신계로 발전하는 데의 공부다. 물질계에서만 헤맸으니까 정신계로 드는 데의 공부 재료다.'

이 정신계와 물질계가 혼합이 돼서 작용을 해야만이 100%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 작용을 하면 그 양자는 질량이 없어지고 광력만,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면만 생각하고 만날 그저 여기 놓고 빌고 저기 놓고 빌고 온통….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이름은 너무 많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으로서 지어서 동방에는 아촉불이요, 서방에는 아미타요, 이 세상에는 관세음이요, 또는 지천국에는 지장이요,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듯이 어느 가정이든지 보십시오. 어느 줏대가 할아버지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형님도 되고 아우도 되고, 사돈도 되고 또는 남편도 되고 또는 아버지도 되고 이렇게 할 때에, 어떤 거 할 때에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여보!" 하면 말도 남편의 말이 나오고 남편의 행이 나오고 남편의 뜻이 나오죠. 허허, 자동적으로. 그런데 "얘, 아무개야!" 부르면 자동적으로 아들의 행동을 하고 아들의 말이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거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했다는 겁니다. 모든 일체가 다 공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만남도 고정됨이 없고 먹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생각하는 것도 고정됨이 없어, 모두가. 그러니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나라는 게 세울 게 없다 이 소리야. 나라는 존재를 세울 게 없다.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니, 화해서 자꾸 돌아가니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도 바로 공이요, 공도 보이는 거다.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한 생각에 수많은 이름의 작용을 하는데 한 푼 한 푼, 내 이런 소리 할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벌어서 절에 간다 하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요기 놓고 빌어야 하고 저기 놓고 빌어야 하고, 저기 놓고 빌어야 하고 신중당에 놓고 빌어야 하고 그러는데, 생각에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왜 그렇게 여러 군데다 놓는가 하면 '요기다 안 놓으면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까' 이래서 고루 놓는 거죠. 한 군데라도 덜 놓으면 노여워서 또 잘못될까 봐. 이러니 사람이 먹고사는 것도, 이 세상에 나온 것도 고통인데 믿음마저도, 종교마저도 그렇게 헤매고 돌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세상에 한 번 나왔다 한 번 가는 거는 정한 이치고 사는 날까지는 꼭 살 텐데 말입니다, 죽는 게 그렇게 어렵고 나라는 거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고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라는 걸 세울 게 없다. 이 도리를 알면 죽는 거다 이 소립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죽는 거지, 말로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감응이 되고 과거의 나와 현실의 내가 부합이 돼서 작용을 해야만이 거기서 대광력이 일어나서 에너지로서 발탁이 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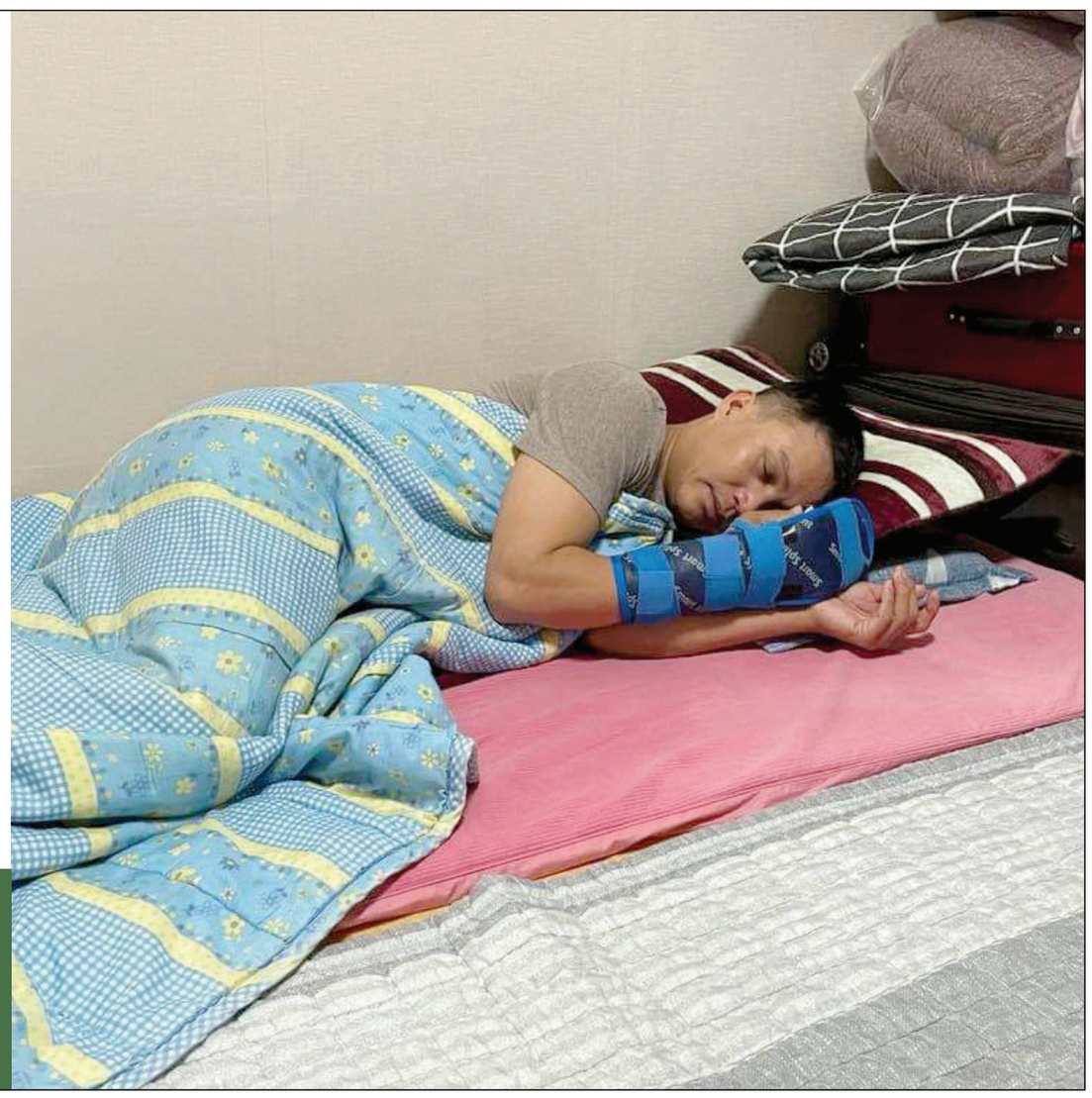
하여튼 어떤 종교든지 가만히 보면 전부 타의에다가 매기단을 해. 모두 바깥으로 찾는

☞ A14면으로 계속

일일시호일

손가락 잘려나가는
끔찍했던 순간에 매일이 고통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리우띠안씨 기계에 손가락 4개 잘려
해고 당하고 기숙사서도 쫓겨나…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이뤄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